

허리둘레 측정기준에 따른 대사증후군 지표와의 상관성

김석중, 김수한, 고희정, 최지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교실

연구배경: 비만의 진단과 치료 평가에 이용되고 있는 허리둘레는 다양한 측정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상장골능과 배꼽을 기준으로 한 허리둘레 중 비만에 의한 대사 이상 지표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2년 4월부터 6월까지 인하대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수진한 성인 남자 171명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와 생화학 검사를 시행하였고 전상장골능과 배꼽을 기준으로 허리둘레를 각각 측정하였다. 허리둘레 측정 방법에 따른 대사 이상 지표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배꼽을 기준으로 측정한 허리둘레는 이완기 혈압($r=0.18$, $P<0.05$), 공복혈당($r=0.19$, $P<0.05$), 총콜레스테롤($r=0.22$, $P<0.01$),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r=-0.24$, $P<0.01$), 중성지방($r=0.39$, $P=0.00$)에서 전상장골능을 기준으로 측정한 허리둘레 보다 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각각의 대사이상지표에 대한 예측도를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배꼽을 기준으로 한 허리둘레는 이완기혈압($R^2=0.070$), 중성지방($R^2=0.168$)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예측률을 보였다.

결론: 허리둘레 측정 방법 중 배꼽을 기준으로 측정한 허리둘레가 전상장골능을 기준으로 측정한 허리둘레 보다 대사 증후군 지표를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배꼽을 기준으로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방법이 복부비만의 진단과 비만환자의 추적 관리에 더 적합할 것이다.

중심단어: 비만, 허리둘레, 대사증후군